

간호대학생의 부모자녀 친밀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공감능력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김종근 · 천의영 · 유장학[‡]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Intimacy,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Empathy on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Kim Jonggun, RN, MS · Cheon Euiyoung, RN, Ph.D · Yoo Janghak, RN, Ph.D[‡]
Dept. of Nursing, Suwon Women's University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effects parent-adolescent intimacy,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empathy on the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Method : Data were collected by 175 nursing students using a self-questionnaire from May 17 to 31, 2017. The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PSS 21.0 using an independent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 :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clinical competency and the other variables. The strongest predictors of clinical competency were parent-adolescent intimacy ($\beta = .33$) and academic record ($\beta = .21$), and the model explained 11.3% ($F=16.04$, $p<.001$) of the variance.

Conclusion : The findings indicated that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explore various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y and develop education programs for college nursing students.

Key Words : clinical competency, patient-adolescent communication, empathy, patient-adolescent intimacy, nursing student

[‡]교신저자 : 유장학, janghryu@swc.ac.kr

논문접수일 : 2018년 1월 17일 | 수정일 : 2018년 2월 10일 | 게재승인일 : 2018년 2월 22일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수원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임상수행능력이란 임상현장에서 능숙하게 기능하고 적절한 지식, 판단과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으로 (Barrett과 Mytrick, 1998) 간호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능력이다. 임상에서 간호사는 대상자와 함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하고 조력적인 인관관계를 맺어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의사소통능력을 활용하여 대상자와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유문숙 등, 2012).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의료환경에서 의사소통을 정확히 하고 환자의 안전의 기본이 되므로 간호실습교육에서 중요시 하고 있으나 일생 전반에 걸친 부모와의 관계에서 학습된 의사소통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부모는 인간에게 가장 친밀한 혈연관계로 가족을 형성하여 자녀에게 양육과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자녀를 낳아 기르고 가르치면서 성장 초기 단계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주요 역할을 감당하고 이를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와 같은 관계는 가장 일차적인 관계로 시작하여 자녀가 성장하는 내내 서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정서적인 면에서 사회생활까지 다양한 영향을 준다. 그러나 최근 부모자녀 관계는 왜곡된 교육열의 영향으로 공부만이 강조되면서 부모의 권위가 낮아지고 존경받지 못하는 부모세대의 권위상실이 오늘날 부모와 자녀간의 세대갈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조흥식 등, 1997). 또한 핵가족이 늘어난 가족의 형태는 부모의 역할을 더욱 크게 하고 자녀 교육에 부모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변화되면서 부모자녀 관계는 더욱 중요해지고 의사소통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처럼 가족의 형태와 시대상의 반영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으나 그럼에도 부모자녀 관계는 가장 기본적인면서 친밀하고 어떤 사회적 관계보다 인간의 행동양식을 학습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은 의사소통을 통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부모의 대화하는 방식이나 태도, 내용 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김경원, 1999). 따

라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은 하나의 사회적 지지로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이나 친밀감은 학교에서의 관계는 물론 임상현장에서의 대상자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내적인 관점을 이해하고, 그것의 감정적인 요소와 관련된 의미를 마치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지각하는 상태로(Rogers, 1997), 부모의 역할비중이 커지고 자녀의 자기주장이 강해진 현대에서는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는 공감능력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간호에서 공감은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효과적 간호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Herdman, 2004). 특히 질적 간호에서 공감은 필수적인 부분으로 돌봄은 간호사에 의한 공감의 결과로 발생하고(Hudson, 1993), 공감을 잘할수록 대인관계를 잘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확인된 것처럼(정명실, 2014), 간호 대학생에게 공감 능력은 임상에서 대상자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감성이다.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수행능력을 변수로 한 연구는 간호교육에서 임상수행능력의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최자윤 등, 2008)와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비판적 사고성향(이외선 등, 2015), 자기효능감(박지원 등, 2012), 임상실습 만족도(양진주, 2009), 공감능력(박정화와 정수경, 2015) 등이 있으며, 임상수행능력과 공감 능력은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공감 능력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양선이, 2015). 또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에 감성지능이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이외선과 구미옥, 2013) 외에도 공감능력 및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수행능력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박정화와 정수경, 2015)에서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수행능력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으며 임상수행능력에 의사소통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상호작용적 의사소통의 중심지로 특히 부모는 자녀의 사회화 및 대인관계 관련 능력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자녀 발달을 설명하는 예측 변인으로 자녀 발달에 큰 영향을 발생시키지만(김반야, 2015)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에 영향이 큰 부모와의 의사소통이나 친밀감과 임상수행능력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간호는 간호사와 대상자가 존재해야만 하고, 이들 존재의 관계는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은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형성에 필수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강조되어야 하며 성인 초기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와의 의사소통과 친밀감 그리고 공감능력은 간호대학생이 치료적 관계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이들 변수들의 영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전문인으로 임상수행능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간호 제공에 기본적인 전제조건인 공감능력과 더불어 부모의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부모자녀 친밀감과 의사소통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친밀감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공감능력 및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부모자녀 친밀감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공감능력 정도를 알아보고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부모자녀 친밀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공감능력,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제 변수간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부모자녀 친밀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공감능력 및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부모자녀 친밀감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공감능력 정도를 알아보고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K도 소재 일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3, 4학년 여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출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로 산정한 결과 최소 155명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본 연구 대상자는 총 175명으로 추정된 최소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3. 자료 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7년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었다. 자료수집에 앞서 간호학부(과)장에게 연구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 대상자에게도 설문조사 전에 연구 목적과 방법,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와 거부 가능성 등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한 후 진행하였다.

4. 윤리적 고려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자료수집 과정 중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연구 참여자의 익명보장, 개인적인 비밀보장, 중도포기 및 거부 가능,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음을 구두와 서면을 통해 설명하였고,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에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동의서를 받음으로서, 대상자를 최대한 윤리적으로 보호하였다.

5.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부모자녀친밀감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20개 문항, 부모자녀 의사소통 20개 문항, 공감능력 28문항과 임상수행능력 45문항, 일반적 특성 8개 문항 등 총 12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영역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적 특성

성별, 연령, 학년, 종교, 학교성적, 현재 동거인, 현재 부모 결혼상태를 묻는 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부모자녀 친밀감

부모자녀 친밀감은 부모와 자녀 간에 정신적, 정서적 교류와 부모가 자녀를 향해 힘쓰는 정도를 말하며(이장주, 2002), 본 연구에서의 부모자녀 친밀감은 이장주(2002)가 개발한 부자유친성정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부모와 자녀 간에 정신적, 정서적 교류관계가 강하고 지속적이며, 부모가 자녀를 향해 관심 갖는 정도에 따라 자녀의 마음 쓰기가 변한다는 가정 하에 개발되었으며, 아버지-자녀 친밀감과 어머니-자녀 친밀감을 측정하는 각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되고 점수의 범위는 아버지-자녀 친밀감과 어머니-자녀 친밀감이 각각 20-10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자녀 친밀감과 어머니-자녀 친밀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장주(2002)의 연구에서 Cronbach's = .92, 본 연구에서의 부모자녀 친밀감 Cronbach's = .97이었고, 아버지-자녀 친밀감 Cronbach's = .96, 어머니-자녀 친밀감 Cronbach's = .95이었다.

3)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부모의 자녀 간에 정보와 의사를 교환하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말하며(Olson과 Barnes, 1982), 본 연구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Olson과 Barnes(1982)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를 번안한 노정화(2002)의 척도를 사용하였

다. 아버지-자녀 의사소통과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을 측정하는 각 20개 문항으로, 두 개의 하위척도인 긍정적인 의사소통 10문항, 부정적 의사소통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자녀 의사소통과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의 그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노정화(2002)의 연구에서 아버지-자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Cronbach's = .85이었고, 아버지-자녀 부정적 의사소통 Cronbach's = .67, 어머니-자녀 긍정적인 의사소통 Cronbach's = .91, 어머니-자녀 부정적 의사소통 Cronbach's = .67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Cronbach's = .85이었고, 하부요인인 아버지-자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Cronbach's = .88이었고, 아버지-자녀 부정적 의사소통 Cronbach's = .64, 어머니-자녀 긍정적인 의사소통 Cronbach's = .87, 어머니-자녀 부정적 의사소통 Cronbach's = .64로 나타났다.

4) 공감능력

공감능력은 타인의 심리상태를 추론하는 인지적 능력과 정서적 상태에 대해 파악하여 대리 경험할 수 있는 정서적 자질을 의미하며(David, 1980),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Davis(1980)가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성 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를 박성희(1994)가 수정하고 보완한 공감능력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8문항이며, 하위요인으로는 인지적 공감능력으로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정서적 공감능력으로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이 포함되며 4영역 각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되고, 부정 문항(2, 5, 10, 13, 16, 19, 20, 25, 27)번으로 역환산 처리하여 공감능력을 계산하였다. 박성희(1994)의 도구를 사용한 지은주(201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 .8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hronbach's = .83이었다.

5)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은 임상현장에서 상황에 맞게 능숙하게 기능하고 적절한 지식, 판단과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최미숙, 2005),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

의 임상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Schwiriam(1978)이 개발한 Six dimensional Scale of Nursing Performance를 기반으로, 최미숙(2005)이 수정하고 보완한 임상수행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45문항이며 하위요인으로 간호과정 11문항, 간호기술 10문항, 교육/협력관계 9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 6문항, 전문직 발전 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못한다’ 1점에서 ‘매우 잘한다’ 5점으로 측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미숙(2005)의 연구에서 Chronbach's α = .96이었고, 본 연구에서 Chronbach's α = .97 이었다.

5.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부모자녀 친밀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공감능력,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제 변수간의 차이는 t-test로,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는 일개대학 여자 간호대학생 3,4학년 학생으로 학년은 3학년 86명(49.1 %), 4학년 89명(50.9 %)이었고 평균연령은 22.1세이었다. 종교는 ‘있음’이 71명(40.6 %), ‘없음’ 104명(59.4 %)이었다. 학교성적은 평점 ‘3.5이상’ 92명(52.9 %)으로 많았고,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친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145명(82.9 %)이었으며, ‘친아버지’, ‘친어머니’ 외만 함께 살고 있다는 응답이 30명(17.1 %)로 확인되었다. 현재 부모 결혼 상태를 묻는 질문에는 ‘결혼’ 150명(96.2 %)로 가장 많았고, ‘이혼 등’ 24명(3.8 %)로 확인되었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75)

Characteristics	Subcategories	n(%)
Gender	Female	175(100)
School year	Junior	86(49.1)
	Senior	89(50.9)
Age	Mean(SD)	22.1(2.10)
Religion	Yes	71(40.6)
	No	104(59.4)
Academic record	Above 3.5	92(52.9)
	Below 3.5	82(47.0)
Who is living with	Both real parents	145(82.9)
	Father or Mother only	30(17.1)
Current marital status	Marriage	150(96.2)
	Divorce etc	24(3.8)

2. 연구대상자의 부모자녀 친밀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공감능력 및 임상수행능력 정도

연구대상자의 부모자녀 친밀감정도는 평균 166.38±22.58

점이었으며,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5점 만점에 평균 3.25±0.40점이었다. 연구대상자의 공감능력정도는 3.59±0.37점이었으며, 임상수행능력정도는 평균 3.68±0.47점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Table 2. Mean score of variables

(N=175)

Variables	Range (Min-Max)	M±SD
Parent-Adolescent intimacy	79-200	166.38±22.58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2.15-5.00	3.25±0.40
Empathy	2.35-5.00	3.59±0.37
Clinical competency	2.68-5.00	3.68±0.47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자녀 친밀감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공감능력 및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

임상수행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은 학년(t=-3.16, p=.002), 종교여부(t=2.36, p=0.02), 학교성적(t=2.71, p=.008)이었다. 즉, 4학년이 3학년보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성적이 중상위권일수록 임상수행능력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은 현재 부모가 결혼관계에 있는 경우(t=2.69, p=0.008) 공감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자녀 친밀감은 성적이 중상위권일수록(t=2.52, p=0.01) 종교가 있는 경우(t=2.17, p=0.03) 부모자녀 친밀감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3).

Table 3. Difference of Parent-Adolescent intimacy,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Empathy and Clinical competency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75)

Characteristics	Subcategories	Parent-Adolescent intimacy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Empathy		Clinical competency	
		M(SD)	t(p)	M(SD)	t(p)	M(SD)	t(p)	M(SD)	t(p)
School year	Junior	3.99 (0.63)	-.94 (.34)	3.27 (0.41)	0.70 (.48)	3.54 (0.37)	-.14 (.85)	3.56 (0.49)	-3.16 (.002)
	Senior	4.08 (0.64)		3.23 (0.39)		3.55 (0.37)		3.79 (0.43)	
Religion	Yes	4.17 (.62)	2.17 (.03)	3.29 (.42)	1.04 (.29)	3.60 (.59)	1.76 (.07)	3.78 (.44)	2.36 (.02)
	No	3.95 (.63)		3.22 (.38)		3.50 (.37)		3.61 (.48)	
Academic record	Above 3.5	4.15 (0.57)	2.52 (.01)	3.26 (0.37)	.22 (.82)	3.60 (.33)	1.83 (.06)	3.77 (.51)	2.71 (.008)
	Below 3.5	3.91 (0.68)		3.24 (0.43)		3.48 (.41)		3.58 (.40)	
Who is living with	Real parents	4.05 (0.63)	.26 (.79)	3.25 (0.38)	.19 (.85)	3.55 (0.34)	.70 (.48)	3.69 (0.47)	.80 (.42)
	father & mother only	4.01 (0.70)		3.24 (0.50)		3.49 (0.47)		3.61 (0.48)	
Current marital status	Marriage	4.07 (0.62)	1.79 (.07)	3.27 (0.40)	1.50 (.13)	3.57 (0.36)	2.69 (.008)	3.69 (0.48)	1.15 (.25)
	Divorce etc.	3.82 (0.72)		3.13 (0.35)		3.35 (0.37)		3.57 (0.39)	

4. 연구대상자의 제 변수 간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제 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임

상수행능력은 부모자녀 친밀감($r=.336, p<.001$), 부모자녀 의사소통($r=.153, p=.035$), 공감능력($r=.310,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175)

Variable	Parent-Adolescent intimacy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Empathy	Clinical competency
Parent-Adolescent intimacy	1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502(<.001)	1		
Empathy	.690(<.001)	.834(<.001)	1	
Clinical competency	.336(<.001)	.153(.035)	.310(<.001)	1

5. 연구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적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던 학년, 종교, 학교성적, 현재 부모 사이의 관계는 명목변수로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여 부모자녀 친밀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공감능력 변수들과 함께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잔차 간의 상호 독립성 검증에서는 Durbin-Watson 통계량이 1.894로 2에 근접하므로 상호 독립적이었고, 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가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지수(VIF) 값도 10을 넘지 않아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6.04,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 (R^2)는 11.3 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자녀 친밀감($\beta =.33, p<.001$)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교성적($\beta =.21, p=.003$)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y

(N=175)

Variable	B	SE	β	t(p)	Adj R^2	F	p
Constant	2.67	.26		12.145(.000)	.113	16.041	<.001
Parent-Adolescent intimacy	.25	.05	.33	4.647(.000)			
Academic record	.20	.06	.21	3.069(.003)			

IV. 고찰

본 연구의 대상인 여자 간호대학생은 양부모님과 함

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82.9 %, 부모가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85.7 %로 2015년 기준으로 결혼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율에 대한 통계청 보고결과인 29.9 %보

다 낮으나 이러한 중년기 이후의 이혼율 상승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라고 보여진다(Statistic Korea, 2016). 부모자녀 친밀감은 166.38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부모자녀 대화수준은 보통이었는데, 이는 대상자가 임상실습 등으로 부모와 대면할 시간이 부족함을 의미하나, 평균 이하의 이혼율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가족간의 관계는 보통이상으로 원만함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공감능력은 3.59점으로 보통 이상이었는데, 이는 간호대학생 대상의 연구인 지은주(2014)의 연구에서 공감능력 점수로 3.68점이나, 박정화와 정수경(2015)의 연구에서 3.4점과 비슷한 결과이었고, 임상실무능력은 3.68점으로 보통 이상이었는데, 이러한 결과도 박정화와 정수경(2015)의 연구에서 3.5점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보통 수준의 임상실무능력과 공감능력을 가진 간호대학생으로 대체로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부모자녀 친밀감은 임상실무 수행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부모자녀 친밀감은 부모가 자녀를 향해 힘쓰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 정서적, 정신적 교류관계가 지속적으로 강하게 발생할 때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정화와 정수경, 2015).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상호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들이 맺는 관계의 상황과 내용은 가족 외의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므로 대인관계의 통체력이 형성되는 기초로 알려져 있다(Rice, 1990). 또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지감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높은 자신감의 기반이 되므로 부모의 정서적 지원은 자녀의 자기효능감을 상승시켜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지속하게 하므로 이러한 부모자녀 친밀감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사회적응과 대인관계를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도 필수적인 과업이라고 볼 수 있다(김경원, 1999; 노정화, 2002).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임상수행능력은 건강한 자아형성과 대인관계 능력을 기초로 타인에 대한 동기부여와 정서적 영향력이 간호전문직 지식과 조화롭게 통합되어야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는 능력으로 알려져 있다(Lee-Hsieh 등, 2003). 따라서 여자 간호대학생이 임상실무 상황에서 성공적인 사회적응과 대인관계를 위해 가

장 기초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야 할 부모에 대한 친밀감이 타인에 대한 동기부여와 정서적 영향력이 필수적인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부모자녀 친밀감 형성과 임상실무 수행능력의 관계에 대해 기존에 조사된 연구는 없었으나, 유사한 개념으로 김경남(2014)은 임상수행능력의 영향요인으로 대인관계 자아탄력성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성공적인 대인관계 적응을 위해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연하게 반응하는 성향을 의미하는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대인관계 적응을 위해 필수적인 내적요인으로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한 것으로 볼 때, 개인의 대인관계의 적응을 위한 필수적인 내적 과업이라는 점에서 부모자녀 친밀감과 유사한 맥락에서 설명되어 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임상수행능력의 영향요인으로 ‘성적’이 나타났는데, 유혜순(2015)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대인관계나 임상실습 관련 요인 뿐 아니라 대학생활 만족도와 학업성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므로 간호전문직 지식과 기술, 태도가 골고루 향상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 공감능력이나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임상실무 수행능력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모자녀 친밀감과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감능력은 다른 사람의 내적 경험인 주관적인 감정을 내가 경험한 것처럼 이해하고 느끼며 의사소통하는 것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의사소통능력에 있어 기술적 측면이라는 점에서 임상실무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이 되기 보다 건강한 자아형성과 대인관계 적응을 통해 임상실무 수행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된다(박정화와 정수경, 2015; 이민선과 채규만, 2012).

또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상호개방적일 때 자녀의 분명한 의사소통 망을 성립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발전시키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여 타인의 의사와 감정을 인식하므로 공감능력을 발전시키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박정화와 정수경, 2015), 이러한 이유로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임상실무 수행능력에 직접 영향요인은 아니었으나, 공감능력을 통해 간접적으

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Lee-Hsieh 등(2003)은 임상수행능력이란 환자들에게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하고 자아인식, 동기부여, 정서적 영향력, 기술과 지식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통합하는 행위 또는 효과적인 임상간호의 수행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홍지연과 박진아(2017)는 간호대학생이 임상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기본간호술기 훈련 뿐 아니라 문제해결능력과 환자 및 보호자, 의료진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긍정적 대인관계 형성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수행능력 부모자녀 친밀감이 성적보다 높은 영향을 미친 요소로 나타난 것은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결국 임상실무 현장에서 간호대학생이 적절한 임상수행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측면이 배제된 기계적인 간호기술의 습득을 강조하기보다 인격적인 대인관계에 기초한 신뢰와 유연한 사회 적응 능력 측면이 교육과정 중에 오히려 강조되어야 하고, 재학 중에 정서적인 함양과 인격적인 대인관계 형성 능력을 기초로 전문적인 간호지식이 습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격적인 대인관계에 기초한 신뢰와 유연한 사회 적응 능력 측면이 교육과정 중에 중요함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편의 추출된 1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조사 연구하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고, 변수들이 갖는 설명력이 11.3 %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므로 향후 종단적 연구를 통해 영향요인을 추가로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적 요인 뿐 아니라 교과 내외 요인을 고려한 경로분석과 같은 설명 틀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V. 결론

본 연구의 대상인 여자 간호대학생은 양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82.9 %, 부모가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85.7 %, 부모자녀 친밀감은 높은 수준을 보였고 공감능력은 보통 이상이었으며, 임상실무능력은 보통 이상이었다. 공감능력이나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부

모자녀 친밀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상실무 수행능력에 부모자녀 친밀감과 성적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자 간호대학생의 임상실무 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 방법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이나 실습지 대인관계 상황에 대한 사례연구, 대인관계 해결을 위한 교과목 등을 교육과정에 필수적으로 편성하므로 재학 중 정서적인 함양과 인격적인 대인관계 형성 능력 향상이 필요함을 제언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김경남(2014).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영향요인. 스트레스학회지, 22(2), 55-65.
- 김경원(199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반야(2015). 관계적 인간의 형성: 부모 자녀 의사소통이 자녀의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노정화(2002).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성희(1994). 공감, 공감적 이해. 서울, 원미사.
- 박정화, 정수경(2015).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수행능력간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11), 7698-7707.
- 박지원, 김춘자, 김용순 등(2012).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효능감, 리더십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학교육, 24(3), 223-231.
- 양선이(2015).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및 자아 탄력성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 한국자료분석학회지, 17(3), 1699-1710.
- 양진주(2009).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5(2), 159-165.
- 유문숙, 김용순, 황명숙 등(2012).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의 관계. 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지, 17(1), 18-27.

유혜순(2015).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 자료분석학회지, 17(2), 1129-1144.

이민선, 채규만(2012).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방략의 매개 효과. 인지행동치료, 12(1), 63-75.

이외선, 구미옥(2013).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스트레스와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6), 2749-2759.

이외선, 구미옥, 김미정(2015).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비판적 사고성향과 감성지능의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1), 380-388.

이장주(2002). 부자유친성정 척도의 제작과 타당화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정명실(2014).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역량강화를 위한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및 대인관계 간 상관관계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2), 332-340.

조홍식, 김인숙, 김혜란 등(1997). 가족복지학. 서울, 학지사.

지은주(2014).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관, 공감능력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료분석학회지, 16(3), 1685-1697.

최미숙(2005). 간호학생의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교수효율성과 임상수행능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자윤, 장금성, 최순희 등(2008). 호흡기계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간호대 학생의 임상수행능력평가. 대한간호학회지, 38(1), 83-91.

홍지연, 박진아(2017). 간호대학생의 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 문제해결과정, 의사소통능력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0), 429-446.

Barrett C, Mytrick F(1998). Job satisfaction in preceptorship and its effect on the clinical performance of the preceptee. J Adv Nurs, 27(2), 364-371.

Davis MH(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the Bulletin of the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 in Psychology. 10, 15.

Herdman EA(2004). Nursing in a post emotional society. Nurs Philos, 5(2), 95-103.

Hudson GR(1993). Empathy and technology in the coronary care unit. Intensive Crit Care Nurs, 9(1), 55-61.

Lee-Hsieh J, Kao C, Kuo C, et al(2003). Clinical nursing competence of RN-to-BSN students in a nursing concept based curriculum in Taiwan. J Nurs Educ, 42(12), 536-545.

Olson DH, Barnes HL(1982). Family inventory of quality of life. Minnesota :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Rice KG(1990). Attachment in adolescence : A narrative and meta-analytic review. J Youth Adolesc, 19(5), 511-538.

Rogers CR(1992).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6), 827.

Schwirian PM(1978).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nurse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Nurs Res, 27(6), 347-351.

Statistics korea(2016). Women's Lives through Statistics in 2016.